47괘 - 택수곤 - 212112

전체 : 곤의 길은 형통하다. 정貞하면 대인은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. 말이 있더라도 믿지 말라. **곤困의 길은 획일화된 해결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안별로 애써 하나하나 해결하는 길이 된다**.

1효 : 처음에 음이 오니, 엉덩이가 (기존의) 뿌리 내린 나무에 머무르고자 애쓰나 어두운 계곡으로 들어가고 마는 상이다. 3년이 지나도 볼 수 없으리라.

2효 : 양이 두 번째에 오니, 주식酒食을 해결하는 문제에 머물러 애쓰니 주색朱色 폐슬을 한 이가  
바야흐로 찾아오는 상이다. 이로운 것은 이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. 정征하면 흉할 것이나 허물은 없으리라.

3효 : 음이 세 번째에 오니, 돌에 머무르며 애쓰다가 남가새풀에 의지하려드는 상이다. 집에 들어가도 그 처를 볼 수 없으니 흉하리라.

4효 : 양이 네 번째에 오니, 서서히 돌아와서 구리쇠로 된 수레에 머무르며 애쓰는 상이다. 인색하더 라도 끝맺음을 두라.

5효 :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, 코를 베고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쓰라. 적색赤色 폐슬의 일에 머무르며 애쓰니 이에 서서히 벗어남이 있으리라. 이로운 것은 이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

6효 :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,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물러 애쓰며, 위태하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물러 애쓰는 상이다. 움직이면 회悔가 생길 것이라 말하나 회悔가 있을지라도 정征해야 길하리라.

전체 : 여기서 “자기에게 오래된 밭과 집이 있다”는 말은, 자기에게 오래된 삶의 터전이 있다는 뜻이다.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오래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함의를 띤 말이다. “그 안에서 삼가 힘쓰라”는 말은 삶의 터전이 오래되어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를 쉽게 저버리지 말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서 힘써 노력하라는 말이다. 당장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듯싶지만, 새로운 터전 역시 그 곳대로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므로 웬만하면 오래된 삶의 터전에 계속 머무르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의 조언인 것이다. 그 때문에 (곤)의 본래 뜻이 '머무르다[止]'는 말이었고, 이후 '극진하다[極]'는 뜻이 된 것이다.

또한 곤의 괘효사를 읽어보면, 그 내용은 갈등의 해결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 
결국 곤의 길은 공동체에 이미 존재하는 규범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에 갈등이 빚어질 때 이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규범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다. 이처럼 규범에 비추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왕의 할 일 중에서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이다.  
  
이러한 곤의 길에 대해 정井은 법도法度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. 당  
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, 법도가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만인이 법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, 이를 통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. 제도制度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.

상경의 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길이었으므로 이와 대대를 이루는 **곤困의 길은 획일화된 해결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안별로 애써 하나하나 해결하는 길이 된다**. 반면 상경의 서합은 다양성보다 통합성을 꾀하는 길이었으므로 이와 대대를 이루는 정井의 길은 사안별 해결이 아닌 제도를 통한 일괄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 곤困과 정#이서로 대對를 이루는 것이며, 이렇게 서로 대조해볼 때 곤困의 의미 역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.